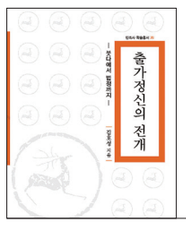


‘출가’가 갖는 가치는 곧, 불교의 정체성



출가정신의 전개
김호성 지음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출가, 가족 및 세속과 이별 고하는 것

전국 사찰에 스님이 줄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이 크다. 조계종서 밝힌 사미 · 사미니 수계자 현황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출가자가 줄어들었다. 2010년 287명, 2015년 204명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 이후 2020년 수계자는 131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보다 75.3%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는 1만 3000여명의 스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사찰에서 행자 교육을 받는 동안 중도 포기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한 해에 적게는 6%, 많게는 30%의 행자가 출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출가 즉 입산해 불도를 닦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및 세속과 이별을 고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출가해 스님이 되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삶의 가치관(깨달음)도 다르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예불 등 수행 일과를 마치고, 저녁 9시에는 취침해야 하는 출가자의 일상 자체가 버거울 수 있다. 일반인들의 삶의 목적이 개인적 성공, 명예를 통한 행복에 있다면 불교에서 출가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니르바나(열반)를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 이타적으로는 중생제도, 즉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다.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두 가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의 수행을 하며, 자비행, 보살행, 불살생(살생하지 않음), 불음주(술을 마시지 않음), 불사음(음행을 하지 않음) 등 계율을 준수하고, 무소유(無所有)의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붓다의 출가 정신은 개인적인 목적(니르바나)보다는 이타행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후 입멸할 때까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제도에 헌신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힌두교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평민들, 사성제도(四姓制度)로 억압받는 인도 하층민의 해방을 위해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설하며 중생제도를 한 붓다의 삶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출가에 대해 중국 유교의 배불론자들은 불효,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자학, 신유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인 조선조 500년 동안 유생들 역시 불교를 비판했고, 비판의 논리 역시 불효, 불충, 인륜을 저버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초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선사는 〈(파사 현정론〉을 지어 배불론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 낱낱이 항변했다. 불교의 오계와 유가의 오상을 연결해 불살생은 곧 인(仁)이요, 불투도는 곧 의(義)며, 불사음은 곧 예(禮)요, 불음주는 곧 지(智)요, 불망어는 곧 신(信)이라 해석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출가의 가치와 본질, 바람직한 삶 조명

이 책은 붓다에서 법정까지 출가의 의미에 관하여 고찰한 책이다. 1부 인도의 출가정신, 2부 한국의 출가정신, 3부 일본의 출가정신, 4부 출가정신의 확장으로 목차를 나누었지만, 크게 주제는 출가의 가치, 출가정신의 본질, 그리고 출가자의 바람직한 삶, 권력과의 거리두기로 볼 수 있다. 출가정신에서는 인도, 한국 그리고 일본의 출가정신을 고찰했다. 인도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붓다의 출가정신과 목적, 의의를 대표적으로 고찰했다. 힌두교적-유교적인 ‘효(孝)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비로소 말해지는 가부장제 또는 가족주의 문화의 탈피를 훨씬 앞선 시대에 붓다의 출가를 통해 감행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 그러한 가족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이 국제정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비폭력 평화의 윤리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보조국사 지눌의 출가 정신을 고찰했다. 보조지눌은 25세에 승선(僧選)을 끝으로 탈권력 하여 당시 수도인 개성을 떠나 하가산, 조계산(송광산) 등 지방으로 내려가 출가 본연의 정신을 지키고자 정혜결사를 주도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출가정신에 대해서는 은둔의 삶을 살았던 둔세승(遁世僧)들의 출가정신을 고찰했다. 이 둔세승들은 모두 탈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권력에 아부하고 편승하는 것은 올바른 출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도겐(道元, 1200-1253)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에 안주하는 자리(自利)적 삶에서 나아가 널리 자비의 말씀을 전하는 중생제도의 실천적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 붓다의 얼굴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깨달음과 자비 이타행 실천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갖출 때 출가정신이 올곧게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붓다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전자, 즉 깨달음을 이룬 각자(覺者)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실천행자 붓다’가 더 중시한 모습을 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얼굴에 대한 조명은 불교 안에서보다는 힌두교의 개혁자 비베카난다에 의해서 행해졌다.

출가정신, 권력과의 거리두기 중요

출가정신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권력과의 거리두기’이다. 탈(脫)권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왕자였던 붓다의 출가가 장차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법 내지 왕권의 장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그 뿌리가 있다. 권력 문제는 교단 밖의 정치 권력과 교단의 관계에서도 말해질 수 있고, 교단 안의 정치문제로도 말해질 수 있다. 이 책의 제2부 2장의 논문과 제3부 1장의 논문은 모두 교단 밖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으로 출가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제1부 1장, 제2부 1장과 3장의 논문들이다. 바람직한 출가자의 모습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비록 이타행을 위해 계율을 깨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율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계율을 깨뜨리는 자를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간소하게 살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무소유(無所有)의 실천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놓았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 “재가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출가의 문제는 결국 출가하신 스님들의 문제이지, 우리 재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 논문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이 책에 들어있는 논문들에서는 출가정신이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고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가자들에게도 장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그다지 강조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점은 〈정토불교성립론〉에 수록된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저자 **김호성 교수**는?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서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1996년 〈선관(禪觀)의 대승적 연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1997년 9월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부임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2002년 일본 붓교(佛教) 대학과 2013년 고치(高知) 대학, 그리고 2018년 류코쿠(龍谷) 대학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그동안 펴낸 학술서적으로 〈대승 경전과 선(禪)〉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불교해석학 연구〉 〈경허의 얼굴〉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힌두교와 불교〉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등이 있다.

200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나무아미타불〉을 번역하면서,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토로 회향하기”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토불교를 연구하는 한편 정토신앙을 널리 권진하고자 하였다. 정토의 신심을 노래한 시집 〈꿈속에서 처음으로 염불춤을 추었다〉와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을 펴냈다. 2005년부터 일본불교사 독서회에서, 2017년부터 정토불교 학술세미나 모임에서 현재까지 권진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